

승려문집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모델 연구

- 『범해선사유고』의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

-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II. 선행사례 분석

1. 현재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 동국대학교의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2. 전근대 인물 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종합DB
3. 불교문헌 자료의 온톨로지: BDRC의 Buddhist Digital Ontology

III. 대상자료 분석

1. 『범해선사유고』의 현황과 체재
2. 『범해선사유고』 수록 저술의 특징

IV.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모델 설계

1. 모델의 개요
2. 클래스(Class) 설계
3. 클래스별 속성(Datatype Property) 설계
4. 개체 간 속성(Object Property) 설계

V. 『범해선사유고』의 시맨틱 데이터 구축 사례

1. 데이터 구축 내용
2. 시맨틱 데이터 탐색

VI.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승려문집은 승려가 저술한 시문(詩文) 등의 단편 저술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한다. 『한국불교전서(韓國佛敎全書)』¹⁾에 따르면 현전하는 승려문집은 99종이 확인되는데, 고려시대 12종, 조선시대 87종으로 조선시대의 문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승려문집은 주로 저자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해서 설(說)한 법어(法語)가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서 구어체적인 성격의 어록(語錄)에 가까웠으나,²⁾ 조선시대 이후로 법어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시와 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집의 체제가 보편화되었다. 승려문집은 특히 17세기 간행된 청허휴정(淸虛休靜)의 『청허당집(淸虛堂集)』을 기점으로 조선 후기에 약 80여 종의 문집이 간행되었는데, 현전하는 승려문집 대부분은 이 시기에 간행된 것이다.

승려문집에 수록된 개별 저술들은 문집의 형식으로 편집되기 이전에 승려 개인의 일생의 면면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저술이었다. 이러한 저술들은 수행자로서 느낀 개인적 감회를 표현하기도 하며,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들과 교류하는 개인의 사회적 면모를 담아내기도 한다. 특히 불교계의 구성원으로서 승려가 경험한 다양한 종교적 활동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불교사회의 다면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승려문집 자료의 아카이빙에 관한 역사는 1976년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에서 “한국 불교문헌을 집대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행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³⁾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은 삼국시대부터 1896년 조선 말기까지 한국에서 찬술된 불교 문헌을 조사하여 목록으로 정리한 것으로, 승려문집은 승려가 편찬한 저술로서 「찬술부(撰述部)」에 실리게 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저자의 간단한 행장과 함께 문헌이 언급된 전거, 문헌의 내용, 현존본의 소장처가 포함된 해제를 부가하고 있어서⁴⁾ 승려문집에 관한 연구의 중요

1) 『韓國佛敎全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편찬. 전체 15책. 본편(1-10책) 1979년-1989년 발행. 보유편(11-15책) 1992년-2022년 발행. 『한국불교전서』는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되고 저술된 한국불교관계 자료를 집대성한 총서이다. 개별 문헌별로 원자료를 탈초, 판독하여 원문을 수록하고 다양한 판본 간의 이동(異同)을 교감하여 주석하였다.

2) 이진오, 『韓國佛敎文學의 研究』, 민족사, 1997, 208쪽.

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2쪽.

4) 박인석, 「『한국불교전서 편람』 간행의 의의와 과제」, 『불교학보』 제71집, 2015, 318-319

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진행된 『한국불교전서』 편찬 사업은,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을 기초로 하여 불교문헌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여 전문을 실어 편찬하였다. 승려문집은 제4책(1982년 간행)에 수록된 고려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과 『대각국사외집(大覺國師外集)』을 시작으로, 제12책(1996년 간행)에 수록된 일제강점기의 승려 동명선지(東溟善知)의 『동명유고(東溟遺稿)』에 이르기까지, 총 88명의 승려가 저술한 99종의 문집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승려문집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 된 데에는 『한국불교전서』의 편찬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후 2010년도부터는 『한국불교전서』를 역주한 『한글본 한국불교전서』가 발간되기 시작하면서 승려문집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2012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웹 서비스는 『한국불교전서』의 원문과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의 번역문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면서 승려문집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현재 승려문집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현된 것으로, 『한국불교전서』라는 컬렉션을 구성하는 자원 중 하나로서 승려문집의 정보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려문집의 자료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승려문집을 비롯한 『한국불교전서』에 수록된 모든 문헌자료들이 모두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는 정보화의 대상이 문헌에 담긴 지식이 아닌 문헌 자체로 설정된 것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한국불교전서』라는 아날로그 형태의 문헌자료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하여 디지털 환경에 옮기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헌에 담겨 있는 여러 유의미한 정보의 개체들이 식별되지 못하고 문헌의 체계 속에서 디지털화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디지털화는 방대한 규모의 승려문집의 텍스트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를 한 부분도 있었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승려문집을 활용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동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헌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문집을 활용한 연구 성과는 점차 축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다시 아카이브의 차원에서 데이터로 구성되어 문집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아카이브는 문집의 디지털 판본을 보이는 데 충실할 뿐이며, 문집에서 발견된

쪽.

지식은 개별 연구 성과물 속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대목에서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의 편찬 작업이 주는 교훈은, 이 작업이 단순히 자료를 조사하여 목록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연구의 기본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거, 실존, 내용, 소장처”를 밝히는 일을 함께 수행했다는 사실이다.⁵⁾ 자료의 아카이빙의 과정에서 인문학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이처럼 대상 세계에 관한 인문학적 지식을 안내함으로써 대상 자원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승려문집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는, 문헌자료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개별 문집 자료의 문맥과 맞닿아 있는 지식으로 안내할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갖추는 일은, 아카이브가 자료의 저장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며, 다양한 지식의 체계에서 자료가 활용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승려문집과 관련된 자료와 지식이 서로 융합의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상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승려문집의 문헌자료의 아카이브에 대하여 “문집에 관한 지식의 층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제안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기존의 아카이브가 문헌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게 되면서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다루지 못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여러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문집에 관한 지식이 다시금 아카이브를 통해서 소용될 수 있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승려문집의 자료가 활용성을 갖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관한 구상은 이른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Encyclopedic Archives)”라는 개념에서 착안한 것이다.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중개자로 삼아 수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물 정보들이 의미적인 관계를 좇아 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를 말한다.⁶⁾ 여기서 백과사전적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분산된 자료와 지식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 요소를 발굴하고, 그 요소들 사이의 의미와 맥락을 데이터화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다.⁷⁾

승려문집에 관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는,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5)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1-2쪽.

6)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12쪽.

7)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24.1.23., 7슬라이드.

매개로 지식의 근거가 되는 원천자료가 연계된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카이브를 구현하는 일은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를 탐구하고 분석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식과 자료가 연계될 수 있는 승려문집에 관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발전적 모델을 제안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델이 재연성을 가지고 다른 승려문집에 관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문집을 대상으로 실제 데이터를 구축하여 귀납적으로 정리된 승려문집에 관한 데이터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표가 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은 문집은 조선 후기 해남 대흥사의 승려였던 범해 각안(梵海覺岸, 1820-1896)이 저술한 『범해선사유고(梵海禪師遺稿)』이다. 1921년 대흥사에서 발행된 『범해선사유고』는 상하권의 4권 2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범해선사시집」 2권과 「범해유집보유」를 합친 것이고, 하권은 「범해선사문집」 2권이다. 『한국불교전서』에는 『범해선사시집』(보유 포함)과 『범해선사문집』으로 나누어서 실려 있으며, 이후 한글본 『한국불교전서』에도 각각 시집과 문집으로 나누어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범해선사유고』는 조선 후기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의 동향과 사상과 신앙, 승려들의 수행상, 그리고 유학자와의 교류 등 다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다.⁸⁾

본 연구의 대상으로서 『범해선사유고』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범해선사유고』는 다양한 유형의 저술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술의 유형에 따라 발견되는 정보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하였다. 『범해선사유고』에 수록된 항목은 전체 369건인데, 이 중 시는 292건, 산문은 77건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잡체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산문으로는 범해의 행장, 기문, 법문, 권선문, 상량문, 제문, 논설, 명문, 찬문, 편지, 행장, 서문, 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문집을 남긴 승려 50% 이상이 100~200여 편의 시를 남겼고, 200여 편 이상의 시를 남긴 승려는 18명으로 확인되는데⁹⁾, 범해는 292편으로 비교적 많은 작품을 남긴 승려였다. 특히 범해가 남긴 시 중에는 동료 승려나 문인들과 서로 주고받은 시가 여러 형태로 수록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시들의 관계성과 여기에서 발견되는 승려와 인물의 관계 양상 등을 파악하는 데 적절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또한 산문에는 승려로서의 개인의 일상적 활동과 종교적 활동에 관한 다양한 저술들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개별 저술의 소재가 사찰의 전각, 불서, 계첩(戒牒), 사찰계(寺刹契) 등과 같은 불교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어서 불교 사회와 문화와 관련된 관계의 양상을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다.

8) 범해 각안 저·김재희 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2020, 5쪽.

9) 최정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95쪽.

다음으로 범해 각안이라는 승려가 가지는 불교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를 비롯한 주변 승려들의 법맥에 관한 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범해는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최대 계파를 이루며 발전해 나갔던 청허계 편양파의 법맥을 이어받은 승려로, 범해의 계보는 청허 휴정-편양언기-풍담의심-월담설제-환성지안-호안제정-연담유일-완호운우-초의의순으로 이어진다. 또한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는 청허 휴정의 의발(衣鉢)이 전해지던 곳으로, 청허계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사세를 확장해나갔던 곳이었다. 따라서 『범해선사유고』에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특히 범해는 『동사열전(東師列傳)』을 통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승려들에 대한 전기를 저술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범해가 속해있던 ‘대흥사 계통의 편양파’ 승려에 관한 기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승전으로서의 『동사열전』이 지니는 한계로 지적되어왔지만, 오히려 범해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관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보조하여 승려의 법맥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해선사유고』는 승려 간의 관계의 양상을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 적절한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범해선사유고』에는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와 대흥사 인근의 암자에 관한 기록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 사찰은 승려의 수행 공간이자 생활 공간으로, 승려의 저술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승려와 관계된 사찰의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 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사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범해가 주석했던 대흥사에 대해서 사찰 관련 문헌 자료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¹⁰⁾ 여기에는 축원문, 사찰계안, 재정관련 문서, 소임관련 문서, 승보안, 중수기, 사적기 등 사찰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고문헌 및 고문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문헌 자료들은 현재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문집에서 발견된 문맥에 관한 정보들이 사찰 자료와 같은 유관 자료로 확장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

이처럼 『범해선사유고』는 다른 문집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서술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아울러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자료와 지식의 통섭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로 구현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대상으

10) 해당 조사사업의 결과물은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1-5, 2014-2018.”를 통해 자료집으로 발간되었다. 조사사업과 발굴된 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류와 가치」, 『불교학보』 제68집, 2014, 293-319쪽.

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방법

먼저 본 연구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대상 세계에 관한 지식을 표현한 데이터들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계되어 거대한 지식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형태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에서 지식이 근거하는 자료 또한 네트워크의 노드(Node)로 구성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식의 네트워크를 통해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된다는 점에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Semantic Database)” 또는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라고도 한다.¹¹⁾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의 체계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승려문집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승려문집에 관한 백과사전적 아카이브를 구현하기 위하여 백과사전적 아카이브가 제안하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수행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¹²⁾

먼저, 승려문집의 디지털 아카이브의 모델의 제안은 개별 문집에 관한 지식정보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해선사유고』를 대상으로 하는 시맨틱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문집에 관한 개별 연구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연구 결과물들이 시맨틱 데이터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향후 다양한 승려문집의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범해선사유고』에서 발견된 어휘들을 중심으로 하는 승려문집의

11) 김현·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 방안-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2023, 4쪽.

12) 이하의 디지털 큐레이션 수행 방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자료에서는 “①전통적인 인문학 공부와 내용적으로 상응하는 스몰 데이터(Small Data)의 편찬, ②다수의 협업 공간에서 빅 데이터(Big Data)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 모델(온톨로지, Ontology) 설계, ③데이터로 전환된 인문지식의 정확성과 명시성을 검증하는 데이터 시각화, ④학술적 이론과 아카이브의 유물, 현장의 활동을 하나의 공간에서 융합하고 감성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하이퍼미디어 콘텐츠(메타버스)”로 구분하여 세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24.1.23., 13슬라이드.

온톨로지(Ontology)를 설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승려문집의 온톨로지가 향후 재연성을 가지고 관련된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온톨로지를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표현된 『범해선사유고』의 지식의 네트워크를 데이터 시각화의 방법을 통해 보임으로써 데이터 구축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한편 시맨틱 데이터의 유효성을 보이고자 한다.

*보완 예정인 내용:

- 연구대상: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로 확장 가능성 제시
- 선행연구 검토 내용 서술: 범해각안 관련 선행연구,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관련 선행연구
- 논문의 구성 방법

□ 승려문집 온톨로지 예시

범해선사유고 데이터 구축에 설정한 클래스

클래스(Class)	내용 ㉠: 자원의 예시	구분
승려문집 LiteraryCollection	* 승려문집(개념적 구분) ㉠ 청허집, 범해선사유고, 초의시고	문집구조 데이터
문집판본 EditionOfRecord	* 판본의 서지 정보 ㉠ 범해선사유고 상권(원각사본), 범해선사유고 하권(원각사본)	
항목편차 CollectionItem	* 문집에 수록된 항목의 구성과 편제에 관한 정보 ㉠ 범해시고 서문, 범해선사시집 제1권, 초의 선사를 애도하다, 범해유집보유, 자용종기	
작품 Work	* 항목에서 식별되는 개별 저술. 작품. ㉠ 은적암 산신각 창건기, 화공양기, 신 참판에게 올리는 편지	사실과 문맥 데이터
기록물 Record	* 작품에 언급된 문헌, 금석문, 기사 및 작품. 이와 관련된 문헌. ㉠ 문헌: 은적사사적, 다비계안, 동사열전. 문서: 대둔사당사헌당명문(1851). 기사: 완당전집에 수록된 <운납에게 보이며 놀러 명사를 증명하다>	
승려 Monk	* 작품에 언급되는 승려. 언급된 승려와 관련된 승려. ㉠ 범해 각안, 월여 범운, 원응 계정,	
인물 Person	* 작품에 언급되는 인물, 언급된 승려 및 인물과 관련된 인물 ㉠ 김태희, 이보일, 김명순, 신헌구, 이희풍	
사찰 Temple	* 작품에 언급되는 사찰, 승려와 관계된 사찰, 암자, 전각. ㉠ 은적암, 은적암 약사전	
장소 Place	* 작품에 언급되는 장소, 승려가 방문한 장소, 승려의 출신지 ㉠ 해남, 금강산	
시간 Time	* 작품에 언급된 시간에 관한 인덱스. ㉠ 1880년, 1880년 8월, 1880년 8월 19일	
사물 Object	* 작품에 언급된 불상, 탑, 부도, 진영, 꽃 등 사물. 이와 관련된 사물. ㉠ 능견난사, 완호 윤후 탑비	
개념 Concept	* 작품에 언급되는 개념어. 작품과 관련된 개념어. ㉠ 산신각, 하안거	
사건 Event	* 문집과 다른 문헌의 내용을 통해 재구성하는 승려 및 장소(사찰)의 사건 정보	

클래스(Class)	내용 ㉠: 자원의 예시	구분
	㉠ 해남 김태희가 은적암 산신각 창건을 위해 시주함(1872년), 범해 각안이 수락산 덕사의 용암스님 선방에서 유숙함(1875년)	
참고문헌 Bibliography	* 여러 지식 요소들과 연관된 참고문헌, 학술연구 ㉠ 이종수, 「해남 은적사의 문헌자료와 역사」, 『불교학보』 제95집, 2021.	참조자료 데이터
웹자원 WebResource	* 여러 지식 요소들과 연관된 웹 자원 ㉠ 국립중앙도서관 은적암사지 원문 열람 페이지	
텍스트 Text	* 작품과 문헌 등의 텍스트 정보 ㉠ 은적암 산신각 창건기 텍스트 정보	

참고문헌

1. 원자료

『梵海禪師遺稿』, 大興寺.

2. 단행본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시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

각안(저)/김재희(역), 『범해선사문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0.

각안(저)/김두재(역), 『동사열전』,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김용태, 『조선불교사상사: 유교의 시대를 가로지른 불교적 사유의 지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김현·김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전서 편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5.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1-5,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4-2018.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사업단 편, 『사지자료집8 대둔사지』, 동국대학교 출판부, 2021.

문화재청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 문화재청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심경호, 『한문산문의 미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이진오, 『韓國佛教文學의 研究』, 민족사, 1997.

3. 학술논문

고영섭, 「조선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한국불교사연구』 제6권,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101-140쪽.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디지털 불교학」, 『佛敎學報』 제86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9, 265-288쪽.

김석태, 「梵海覺岸의 頭輪山 漢詩」, 『한국언어문학』 제73권, 한국언어문학회, 2010, 113-134쪽.

- 김종진, 「18세기 승려 괘허취여(括虛取如)의 문학 세계」, 『溫知論叢』 제55호, 온지학회, 2018, 9-44쪽.
- 김종진, 「조선시대 불서 서·발문 집성과 번역에 대한 제언」,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제29권, 제1호, 사단법인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23, 23-54쪽.
- 김창숙, 「『초당집』의 이해와 시대적 배경」, 『한국선학』 제45권, 한국선학회, 2016, 171-198쪽.
- 김현, 「고문헌 자료 XML 전자문서 편찬 기술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제29권, 한국고문서학회, 2006, 183-230쪽.
- 김현, 「디지털 인문학과 고문헌 자료 연구」, 『열상고전연구』 제5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13-38쪽.
- 김현,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를 위한 디지털 큐레이션 모델 연구」, 세계유교문화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 마스터플랜 연구, 2020. 3. 국학진흥원.
- 김현, “백과사전적 아카이브”, 국립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2024.1.23.
- 김현·강혜원, 「고고학술정보 데이터 아카이빙 전략과 구현 방안-한국고고학사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제안-」, 2023.
- 김현·안승준·류인태, 「데이터 기반 인문학 연구 방법의 모색: 문중 고문서 아카이브와 디지털 인문학의 만남」, 『횡단인문학』 제1권 제1호,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인문학연구소, 2018, 17-61쪽.
- 박동춘, 「범해각안의 茶詩 연구」, 『大覺思想』 제13권, 대각사상연구원, 2010, 187-219쪽.
- 박명희, 「순천 송광사 간행 고승문집 연구」, 『東方漢文學』 제24호, 동방한문학회, 2003, 241-270쪽.
- 박인석, 「『한국불교전서 편람』 간행의 의의와 과제」, 『佛敎學報』 제71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5, 316-325쪽.
- 박해당,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승려문집의 서문을 중심으로-」, 『泰東古典研究』 제28권,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2, 1-26쪽.
-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제39권, 불교학연구회, 2013, 367-413쪽.
-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사 시기구분 시론」, 『불교학연구』 제45권, 불교학연구회, 2015, 267-300쪽.
- 양은용, 「梵海覺岸의 茶禪思想 연구 1부」, 『차문화·산업학』 제4권 제2호, 국제차문

- 화학회, 2008, 1-17쪽.
- 오경후, 「동사열전의 사학사적 검토」, 『史學研究』 제66호, 한국사학회, 2001, 121-157쪽.
- 오경후, 「梵海覺岸의 古代佛敎史 認識」, 『회당학보』 제6권, 회당학회, 2001, 240-267쪽.
- 오경후, 「조선후기 불교사 연구 성과의 검토와 과제」, 『역사민속학』 제5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7, 77-101쪽.
- 오경후, 「19세기 대흥사(大興寺)의 선교경향(禪敎傾向)」, 『한국선학』 제56호, 한국선학회, 2020, 69-101쪽.
- 이대형, 「조선시대 승려문집의 문체와 내용별 특징」, 『동악어문학』 제69집, 동악어문학회, 2016, 171-297쪽.
- 이대형, 「불가 유산록 「夢行錄」의 문인 취향과 불교적 성격」, 『열상고전연구』 제50권, 열상고전연구회, 2016, 257-281쪽.
- 이대형, 「20세기 초 승려문집 『茶松文稿』의 문체적 특징」, 『어문연구』 제47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325~349쪽.
- 이재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의 방향」, 『大覺思想』 제18권, 대각사상연구원, 2012, 461-493쪽.
- 이재수,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구축과 과제」, 『전자불전』 제19권,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17, 103-134쪽.
- 이종수, 「조선후기 大菴寺 현창 운동과 그 의미」, 『동국사학』 제50권,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173-200쪽.
- 이종수, 「17세기 유학자의 불교인식 변화」, 『보조사상』 제37권, 보조사상연구원, 2012, 257-292쪽.
- 이종수,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류와 가치」, 『불교학보』 제68집, 2014, 293-319쪽.
- 정민, 「다산 일문(逸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韓國漢文學研究』 제50호, 한국한문학회, 2012, 101-127쪽.
-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48집, 동양어문학회, 2007, 87-117쪽.
- 정윤섭, 「조선후기 대흥사의 중흥과 불교·유교의 교유(交遊)」, 『향토문화』 제41권, 향토문화개발협의회, 2022, 212-249쪽.
- 조은수, 「『한국불교전서』의 편찬과 과제」, 『韓國佛敎學』 제69권, 한국불교학회,

2014, 99-132쪽.

조태성, 「대흥사(大興寺)의 시풍(時風)과 시단(詩壇)의 모색(摸索)을 위한 시론 -편양당과 소요당의 문학을 중심으로-」, 『호남학』 제40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7, 273-296쪽.

최진경, 「17세기 승려 풍계 명찰(楓溪明察)의 시세계 연구」, 『한국문학연구』 제71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3, 71-108쪽.

황인규, 「高僧傳과 高僧文集의 集成 : 韓國高僧集의 集成 및 간행을 위한 試攷」, 『불교학연구』 제32권, 불교학연구회, 2012, 485-525쪽.

4. 학위논문

최정이, 「조선시대 승려의 문집 간행에 대한 서지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5. 웹 자원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Encyves Wiki,

<http://dh.aks.ac.kr/encyves/wiki>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BDRC), Buddhist Digital Ontology,

<https://purl.bdrc.io/ontology/core/>

中華電子佛典協會(CBETA), CBETA 漢文大藏經, <https://tripitaka.cbeta.org/>

法鼓文理學院(DILA), 鏈結開放資料平台, <https://lod.dila.edu.tw/index.php>

法鼓文理學院(DILA), 佛學規範資料庫, <https://authority.dila.edu.tw/>